

한국불교를 말한다

전국 곳곳에 봉축 열기가 뜨겁다. '연꽃 세상'이라도 도래한 것 같다. 그렇다 면 이것이 한국 불교의 진면모인가? 이런 때, '한국 불교를 말한다'라는 다소 간 선언적이면서도 무거운 얘기를 한다는 것이 적절하기는 한가?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는 역시 '오늘'이다. 과거나 미래와 절연된 오늘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연장선상에서의 오늘.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의 한국 불교를 성찰함은, 한국 불교의 진면모를 한 부분이라도 확인하는 일임과 동시에 내일의 한국 불교를 전망해 보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특히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오늘의 한국 불교를 냉철하게 바라본다는 것은 가장 불차다운 '부처님 찾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언제나 당연한 현실의 문제를 제1선에서 부딪치면서 불교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도법 스님. 미묘한 문제에 대해서도 표현의 예수를 잃어, 구도자적 치열함으로 대담에 응해 주셨다.

도법 스님(심양사 주지)에게 듣는다

(대담: 윤제학 취재2부장)

◆ 먼저 한국 불교사를 시대별로 개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국 시대부터 통일신라-고려-조선에 이르는 한국 불교의 시대별 특징을 간단히 개략도 짚어 보신다면...

고대, 즉 삼국시대의 불교는 국교적 성격의 왕실 불교로 출발했다고 봐야겠지요. 물론 신라의 경우는 왕실의 불교 수용에 대한 즉장 세력의 반발로 이차돈의 순교가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 진흥왕 때부터는 왕실로부터 극진한 보살핌을 받은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후 통일신라 때는 의상, 원효와 같은 고승이 나오고 화엄종이 대세를 얻는 한편, 말기에는 선종이 대두하지요.

이러한 상황이 고려로 이어지면서 '선'은 교종의 한계를 극복함과 함께 풍부한 사상적 다양성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국가 권력과 밀착은 더욱 심화되어 불교 자체가 권력 집안인 됩니다. 신라의 불교가 단순히 정치 권력의 보호를 받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지요.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주체적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보호를 받는 상황에서도 불교의 본질이 왜곡될 때는 단호히 거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이에 더해 내부가 부패함으로써 쇠락과 탄압을 자초한 겁니다. 이런 현상이 탄압에도 반복이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주체적 고민이 없었지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체제 순응적' 왜곡의 핵심입니다.

조선은 그야말로 암흑기였지요. 하지만 조선 불교를 이렇게만 언급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지만, 극복의 몸부림은 없었던 때'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서산과 사명의 승병 활동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 자구의 몸부림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 이런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일관되게 흐른 하나의 정신이 있다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흔히 이런 물음에 대한 답으로 '호국'을 들먹이는데, 한국 불교는 이것부터 국

복해야 합니다. 국가나 조직에 종속된 호국은 불교 입장에서 성립될 수 없어요. 이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간단히 인도 독립 정신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비폭력과 평화를 버리려면 독립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치해요.'

원저하게 불교적인 세계관과 철학으로 국가나 조직을 넘어서야 합니다. 오직 법(진리의) 정신, 법의 길만이 불교가 가야 할 길이고 '인류의 희망'입니다.

◆ 많은 논자들이 한국 불교의 고유성을 얘기할 때, '원효'의 '화쟁과 회통 불교'를 듭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의 한국 불교는 화쟁의 전통 위에서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원효'는 오늘의 한국 불자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육화'되어 있는지...

우선, '화쟁과 회통'을 한국 불교만의 특징적 사상으로 보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화쟁과 회통이 뭐니까. 그건 곧 연기론이요. 연기론적 사유 방식이 원효 스님이 살았던 시대에는 화쟁과 회통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화쟁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든, 불법의 진리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원효의 삶을 오늘의 한국 불교는 어떻게 체화하고 있는가? 하고 물었을 때, 저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원효 스님의 삶은 두 가지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자비지요. 진리 즉 연기법의 구체적 실천과 세상의 인락, 이것만을 지향한 것입니다. 오직 진리 추구의 정신으로 세상의 이익과 인락을 위해 고민했던 겁니다. 부처님의 삶이 그랬어요. 그리고 원효 스님은 그것을 그대로 따른 거지요.

그러나 오늘의 한국 불교는 그렇지 못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틈틈이거니와 세

상의 인락에도 충실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원효의 문제 의식과 실천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 시대의 삶으로 실현하려는 의식이나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 오늘의 한국 불교는 과연 대중적인가 하는 의문과도 상통하는 지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한 마디로, 오늘의 한국 불교는 불교를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대중의 '대'를 단순히 크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곤란합니다. 쉽게, 지리와 이타로 대중과 소승을 구분하는 것도 단세포적이에요.

사상적으로 봤을 때, 소승은 아공(阿含)만을 인정해요. 법공(法苑)은 인정하지 않지요. 대중은 아공과 법공 둘 다를 인정합니다.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소승이 자기 중심적이라면 대중은 관계 중심이라고 봐야겠지요.

대중의 '대'는 규모나 수치의 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 즉 연기의 가르침에 부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대'와 '소'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연기법의 진리에 일치하는 '대'만이 '크고 작음' 모두를 포용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대중은 대법한 것, 큰 것,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이해되고 있어요. 흔히 정치인들이 아함에 불과한 타협을 하고도 대중적 결단이라는 표현을

“發露참회 · 진리추구만이 갈 길”



◆ 기복에 대한 비판은 오랫동안 계속돼 왔습니다만, 최근 들어 '작복(作福)'이라는 말로 해법을 찾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도, 같은 내용을 표현한 바귀 정당화하는 듯한 허(虛)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전에서든 복을 얘기합니다. 이런 어떤 일을 하면 좋은 세상이 태어난다 하는 식으로 말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부처님의 고민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후, 설법을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심각하고 민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첫째는 연기법의 심오함 때문이었고, 둘째는 인간이란 욕망에 탐착하는 존재라는 점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출·제가를 구분하여 법의 세계로 이끌었다.

출가자에게는 연기와 무아를 강조하고, 재가자에게는 보시와 계율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를 강조한 점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를 통해, 탐욕의 논리로부터 거리를 두고자 한 것이지요. 보시를 통한 자기 정화가 선행되어야만, 진리의 세계로 들어설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복 짓는 일이란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복'의 개념을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복을 깨닫고 진리의 세계로 들어서는 접근 과정으로 행하는 일이 복 짓기라는 것입니다.

기복이든 작복이든 다 좋습니다. 문제는 내용과 지향점입니다. 복 짓기가 세속적 가치의 추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 끝으로 결론 삼아 오늘의 한국 불교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와 지향점에 대한 질문으로 대답을 마칠까 합니다.

불교 그 자체, 즉 연기의 가르침에 충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발로참회(發露懺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떤 허물어진 날남이 드러내고 진정으로 공회(公悔)해야 합니다. '집안의 추함을 바깥으로 드러내서는 안된다'는 명분으로 는 가리고 아웅 식의 박주기를 원만으로 여기는 것은 상처를 골게 할 뿐입니다.

발로참회의 정신은 불교의 역사에 깊이 이어져 왔습니다. 초기 불교가 부파의 왜곡으로 치달자 대중이 일어났고, 대중이 오염되자 선으로 그 극복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외형의 확장이나 타 종교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 정부에 대한 발언권을 높이는 것 따위로는 불교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연기법의 진리에 충실하는 것만이 불교가 갈 길입니다.

진리 · 진실 · 사실에 입각해야만 ‘大乘’

복짓기, 세속적인 가치 찾는데 그쳐선 안돼

외형 확장 · 타종교와 경쟁 불교완 무관

쓰잡이요. 진리 · 진실 · 사실에 입각하는 것이 대중이요. 그러나 오늘의 한국 불교는 이러한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면서 대중을 강조해요. 불교의 근본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겁니다.

◆ 이 지점에서, '선(禪)'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오늘 날 한국 불교는 정체성의 핵심을 '선 불교'로 보는 경향이 짙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전통 혹은 정통 선은 한국 불교에서만 유지되고 있다는 말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선 없는 선 과잉'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선만이 모든 것인양 하면서도 결재 대중은 10% 남짓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불교의 근본에 대한 이해에서 그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불교를 모르고서는 선을 알 수 없습니다.

연기적 세계관과 사유 방식이 아니고서는 공(空)도 중도(中道)도 선(禪)도 나올 수 없습니다. 모든 스님이 선방에 있던 단 한명의 스님이 있건, 문제의 본질은 수량적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전부정, 전공정의 무애제재한 선 정신이 나오려면 연기론적 철학에 입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만약 이러한 입장에 투철하다면 단 한명의 스님이 선방을 지켜도 선은 살아있는 겁니다.

불교와 선을 차별화하는 것이 문제예요. 불교를 모르면 선도 알지 못합니다. 불교를 떠나서는 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 '그림자'라는 허상을 통해서 실체를 유추할 수도 있다고 했을 때, 한국 불교의 일그러진 모습을 점검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불교가 중언을 고해야 할 것들'을 짚어 주시죠.

워낙 많아서 원... (웃음) 흔한 예로 방

생을 들어 볼까요. 방생, 중요하죠. 좋은 견데, 많이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그릇된' 방법입니다. 대형 불사 문제도 그래요. 높이고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과연 이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느냐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데, 그게 빠져 있어요. 이 시대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절히 원한다면 30미터가 아니라 100미터의 부처님도 세워야지요.

이런 현상을 언급하자면 끝도 없을 테니까, 이런 현상을 야기한 태도를 짚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사찰에서마저도 권리를 추구하고 최고의 것을 찾는 풍조가 지배적이예요. 이견 수행자로서 자해 행위와도 같습니다. 신도들이 가져오니까 쓴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있는 거라고 맘대로 쓰고, 가진 권력이라고 맘대로 휘둘러도 좋다는 겁니까?

가치 판단에 있어서 이중 삼중의 잣대도 문제예요. 필요에 따라서, 상대를 공박할 때, 중언 중박과 율장을 들먹이면서도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시키지는 않아요. 위선적이라는 거죠. 방생을 안 한다고, 대형 불사를 안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비불교적, 반승가적 태도에 있어요.

고마운 분들께 사랑을 선물하세요

불심으로 가는 그 길에 언제나 자비로가 함께 합니다!

자비로 제품특징 남·녀 공용 225~265mm

- 천연가죽 뉴백의 사용으로 착화감이 뛰어나
- 하이퍼그립의 사용으로 미끄럼방지 및 접지력 탁월
- 특수방수 처리
- 스토퍼를 사용해 워킹시 발의 안정감을 줌 (스토퍼 고정용자석부착으로 착화시 더욱 편리해짐)
- 통기성이 뛰어난 고급삼베 인솔 사용
- 가볍고 편안해서 스님 및 불자들의 신행에 적합

전국 르가프 매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본 사: 02-320-0602~3 유통지점: 02-320-0795 동서울지점: 02-320-0622
 남서울지점: 02-320-0781 대전지점: 042-487-9602 호남지점: 062-511-8377
 영남지점: 051-309-7122 대구지점: 053-964-5476

Only One Number One
트렉스타
 www.treksta.co.kr
 TEL: 051-309-3663(번)